

## 긍정사회복지실천으로의 전환: 부정과 긍정의 균형

박 미 진 (부산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 1. 서 론

사회복지실천은 응용학문으로서 인간행동에 대한 인접학문의 변화와 밀접하게 교류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내부적으로도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기반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실천관점이나 이론들을 발전 변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기반 변화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나은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고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회복지실천 관점의 주된 변화는 문제 혹은 병리중심의 접근에서 강점중심의 접근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복지실천 관점이나 모델은 강점관점, 임파워먼트모델, 탄력성모델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심리학에서도 사회복지실천관점에서의 변화와 유사하게 병리중심에서 긍정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긍정심리학을 들 수 있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Seligman<sup>1)</sup>이 주축이 되어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미국심리학회와 영국심리학회는 2003년 긍정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학의 개념을 토대로 긍정적 행동 지지학회(Positive Behavior Support)가 결성되어 긍정행동개입 저널(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는 긍정심리학센터가 개소되고, 행복학을 전공하는 심리학 전공분야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은 연구 주제나 연구질문의 변화를 가져오고, 실천가를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은 긍정심리학과 같이 사회복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성이나 강점관

1) Seligman은 정신병리(psychopathology, 1977), 무력감(helplessness, 1975, 1976) 연구에서 학습된 낙관주의(Learned Optimism, 1992, 1998, 2006),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연구로 전환한 대표적인 심리학자이다.

점과 같은 개념들을 긍정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로 명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이나 이론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긍정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용어의 명명은 최근의 추세들이 긍정과학(positive science)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도 이들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긍정사회복지실천(positive social work)은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이론적 관점과 유사하다. 즉 인간의 약점이나 질병, 병리, 장애와 같은 문제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장점이나 강점, 자원의 개발, 역경에서의 성공적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인간의 잠재된 힘이나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이들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인간의 본성이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관점이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증거기반실천의 위계적 증거단계에 따라 긍정사회복지실천연구를 분류하여 긍정사회복지실천의 연구동향을 탐색하며, 긍정심리학과 같은 긍정관점의 변화움직임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사회복지실천 관점의 변화

사회복지실천 관점이나 이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재검토(양옥경, 최명민, 2005)를 통해 정리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교육방법이나 연구방향도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공감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실천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모델로는 강점관점, 임파워먼트모델, 탄력성모델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구추세들은 사회복지실천관점이 1990년대 이후부터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탄력성 연구 등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강점관점이나 임파워먼트, 탄력성 모델은 공통되게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관점,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관점이나 모델을 강점관점의 하위모델로서 이해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먼저 강점관점은 사례관리와 접목되어 하나의 실천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들이(박정임, 2002; 노혜련외, 2006) 있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모델을 강점관점의 하위모델로 분류하였던 양옥경과 최명민(2005)의 분류는 논의될 부분이라고 본다. 또 탄력성연구는 강점관점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한다는 측면은 강점관점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점관점의 하위모델이 되는 것은 탄력성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점관점이나 임파워먼트모델, 탄력성모델의 상위개념이 필요하고, 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긍정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심리학에서 긍정관점의 전반적인 흐름을 긍정심리학이라고 명명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긍정사회복지실천이라 함은 강점관점, 탄력성, 임파워먼트를 포함한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심리학에서의 긍정과학 추세: 긍정심리학

심리학내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은 단순히 문제(혹은 문제초점)의 개념들 내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임상심리사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은 클라이언트의 병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낙인된 혹은 편견된 용어들을 사용해 왔었다. 이러한 편견들은 인간의 강점, 중요한 변화과정, 결과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 왔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Sheldon, King, 2001).

<표1> 긍정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들

인지 정서 차원	발달 차원	대인관계 차원	지역사회 차원
행복함	아동/청소년 긍정발달	긍정관계	안녕감 증진정책
희망	탄력성	이타주의	긍정적 문화
몰입(flow)	긍정노화	사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정책
낙관주의	신체장애이후 긍정적 성장	공감	통합/재활을 위한 긍정적 접근
강점	긍정대처	용서	긍정적 작업환경이나 조직환경
주관적 안녕감	영적발달과 성숙함(maturity)	친밀감	최선의 휴먼기능향상을 위한 환경사정
자기효능감		감사	
창의성과 지혜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태들을 보수하는데 골몰해 있던 심리학을 삶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단지 질병, 약점, 손상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점과 미덕에 관한

학문이기도 한 것이다(이희경, 2006). 따라서 긍정심리학의 주된 관심주제는 <표1>에 정리된 바와 같다.

긍정심리학은 상담심리관점의 변화 및 사정방법의 변화(Snyder, Ritschel, Rand, Berg, 2006; Wong, 2006; Harris, Thoresen, Lopez, 2007), 정신보건영역에서 상담의 이론적 토대를 변화시켰고(Stephen, Alex, 2005; Ahmed, Bosvert, 2006), 긍정변화를 강조하는 학교세팅에서의 적용(Chafouleas, Bray, 2004)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에의 적용(Dunn, Dougherty, 2005)으로 응용확대되고 있다. 또한 긍정심리학(Carr, 2004; Snyder, Lopez, 2005)에서는 실천현장에서 긍정심리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Linley, Joseph, 2004), 인간강점의 심리학(Aspinwall, Staudinger, 2003), 긍정심리의 사정방법(Lopez, Snyder, 2003)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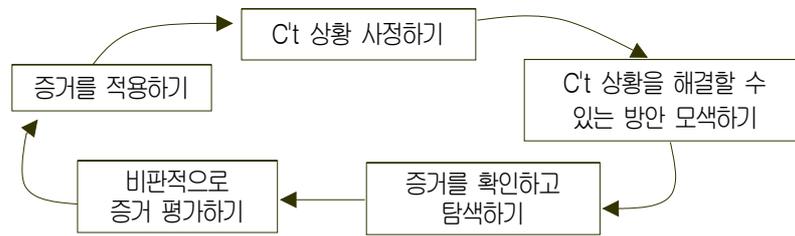
물론 긍정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개인의 속성이나 특성을 강조하고, 환경에서 의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긍정심리학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여 이를 조작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화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Chafouleas, Bray, 2004).

#### 4. 위계적 증거단계에 따른 긍정사회복지실천 연구 비교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실천관점의 변화에서 논의된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탄력성 모델 세가지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위계적 증거단계(hierarchy evidence level)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증거기반실천은 <그림1>과 같이 클라이언트 상황에 개입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지지된 혹은 최선의 실천방법이 된다는 증거(evidence)가 확인된 것을 토대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답변들을 찾은 뒤,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인하고 탐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탐색된 증거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다시 증거를 실천 현장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증거에 기반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Leach, 2006). 긍정사회복지실천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서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거기반실천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실천지혜나 전문적 의견,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욕구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는데(Rycroft-Malone et al, 2004), 긍정사회복지실천 역시 이와 같은 긍정관점의 실천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

이 보고될 필요가 있다.



출처: Leach, M.J.(2006). p.249

<그림1> 증거기반실천의 패러다임에 따른 긍정사회복지실천의 연구방향

증거기반실천에서는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인 증거단계를 제시한다. 위계적 증거단계중 가장 높은 1단계는 체계적 리뷰나 메타분석이 해당되고, 2단계는 무선회된 통제실험집단연구, 3단계는 비무선회된 비통제/비실험 집단연구, 4단계는 분석적인 관찰연구나 임상사례가 되며, 마지막 5단계는 전문가의 임상 의견과 경험 및 임상사례를 들 수 있다(Tucker, Roth, 2006). 이와 같은 위계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pia, 한국학술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를 활용하여 검색어(강점관점 or Strengths perspective/ 탄력성 or 적응유연성 or resilience/ 임파워먼트 or 권한부여 or empowerment)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표 2>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들이다. <표2>의 결과에 의하면 1990년 후반부터 긍정관점의 사회복지실천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계적 증거단계에 따르면 체계적 리뷰나 메타분석 연구, 무선회된 통제 실험연구가 검색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상 무선회된 통제실험연구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긍정관점의 연구결과에 대한 체계적 리뷰나 메타분석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 변화에 따른 실천의 효과성이나 실천개입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체계적 리뷰나 메타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천가에게 현재의 연구증거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구집단에 강점관점을 적용하고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많은 연구들(Early, 2000; Perkins, Tice, 1996; Siegal, 1995; Tharsher, Mowbray, 1995; von Wormer, 1999; Cox, 2001)이 있으며, 연구결과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강점을 기초로 하는 접근법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송성자, 최중진, 200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천가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의 임상 의견과 경험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는데,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경험한 분석적 관찰연구나 전문가의 임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개발권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전문가의 관찰연구나 임상 의견이 외부전문가와 공유되지 못한다면 실천지혜 및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을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교육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2> 위계적 증거단계에 따른 긍정사회복지실천 연구 동향

위계적 증거단계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탄력성
체계적 리뷰나 메타분석	-	-	
무선화된 통제실험 연구	-	-	
비무선화된 비통제/비실험 연구	강점관점의 사례관리 (노혜련외, 2006)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최용민, 2006) 역량강화와 SST (이용표, 2003) 자원봉사와 임파워먼트 (최명민, 2004) 자립준비와 임파워먼트 (김희성, 2004)	가정폭력노출과 사회적 탄력성 (이상준, 2006) 실질가정청소년과 적응유연성 (박현선, 1999)
분석적인 관찰연구 임상사례	강점관점의 사례관리 (노혜련외, 2006) 강점관점과 해결지향질문기법 (송성자, 최중진, 2003)	심리사회적 대응과정 (박미은, 1997) 장애인 임파워먼트과정 (김미옥외, 2005) 임파워먼트의 의미 (김인숙, 우국희, 2002)	-
전문가의 임상 의견과 경험	-	-	-

## 5. 사회복지실천에서의 함의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사정해 낼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있어서 사정방법은 개입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긍정관점의 사정방법을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긍정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강점, 탄력성, 임파워먼트를 종합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은 또 다른 강점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Dunn, Dougherty, 2005),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사회복지실천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림2>는 긍정심리학에서 긍정관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사정틀이다.

긍정관점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될 필요가 있다. Seligman, Rashied, Parks(2006)는 경도의 우울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서, 관여(engagement), 의미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치료의 인과론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비교한 연구결과 우울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우울집단에 있어서도 긍정심리치료집단군이 약물치료 집단과 보통의 우울집단치료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인 정서, 관여, 의미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 긍정심리치료의 효과성을 보고하였다. Wong(2006)은 강점중심의 개인정신치료가 긍정심리학의 일환으로 소개하면서 강점중심의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미덕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Source)	
		클라이언트 내부	환경 내부
균형	자산	#1	#2
	약점	#3	#4

출처: Synder, Ritschel, Rand, Berg, 2006,. p.36.

<그림2> 강점사정의 4차원 매트릭스

## 6. 결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강점이나 탄력성, 임파워먼트의 개념들을 활용하고자 하나 이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없이 기본적 원칙으로서 이해함에 따라 이론과 실천의 차이(gap)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긍정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강조와 보다 자세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교육방법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교육방법의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침개발과 같은 실천지향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있어서 강점과 자원개발, 잠재력을 평가 사정할 수 있는 분류체계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실천가가 긍정과 부정의 두 관점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토대가 이뤄질 때 긍정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확대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긍정심리학을 비롯한 긍정과학의 개념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고 응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개입방법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클라이언트

의 강점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지, 이를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긍정적 상태나 믿음을 반영하는 연구변수들을 통한 실증적 연구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sup>2)</sup>

- Carr, A. 2004.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human strengths*, New York: Brunner Routledge.
- Green, R.R. 2007. *Social Work Practic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Belmont: Thomson Brooks/Cole.
- Seligman, Rashid, Parks, 2006.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2-788.
- Synder, Lopez, 2005.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everstiy Press.

---

2) 지면관계상 참고문헌이 생략되었음.